

조선/기계/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

02. 6454-4879
kiyeon.bae@meritz.co.kr02. 6454-4873
jungha.oh@meritz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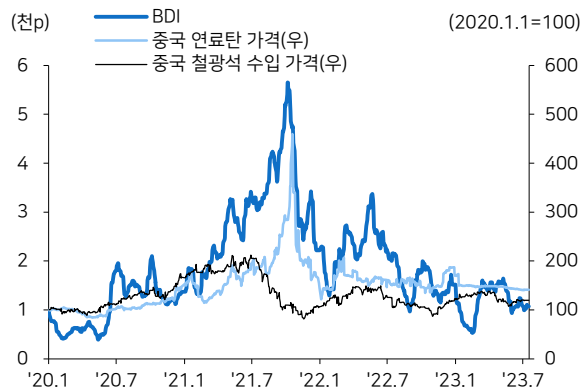
2023. 7. 19 (수)



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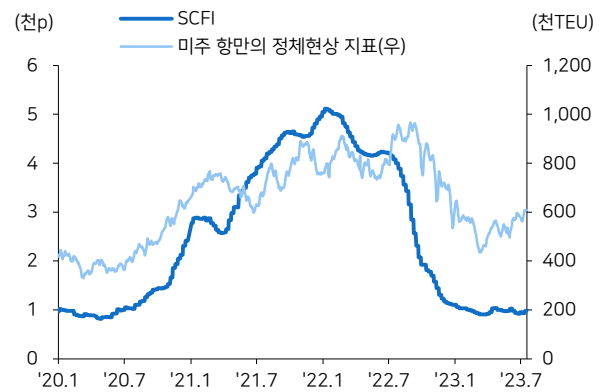
건화물운임(BDI)

1,037.0p(-36.0p DoD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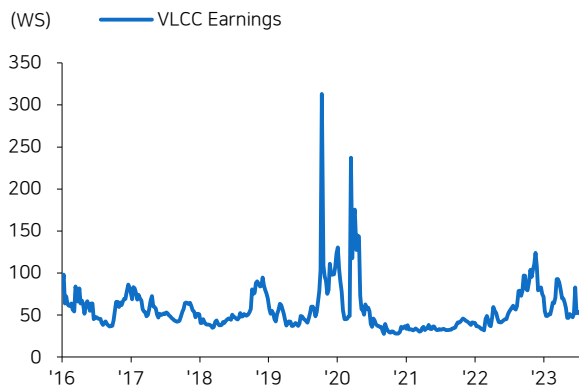
컨테이너운임(SCFI)

979.1p(+47.4p WoW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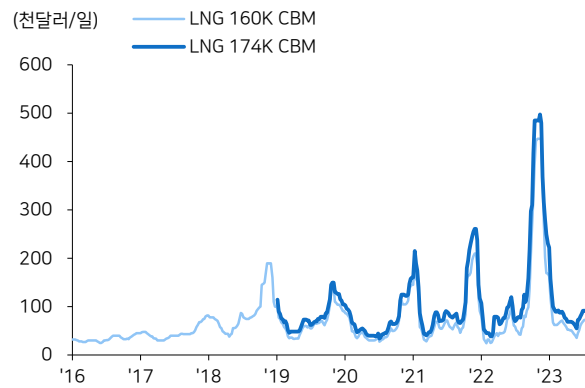


VLCC Spot Ra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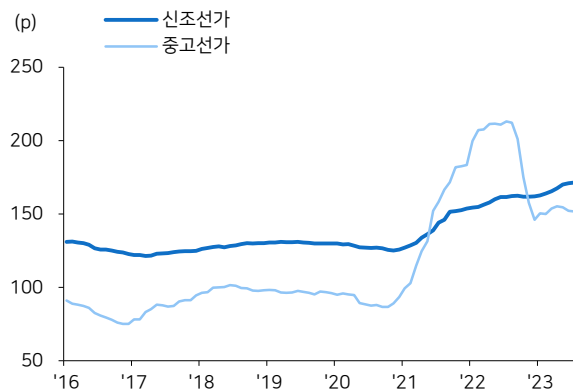
51.6p(-0.7p WoW)



LNG Spot 운임

72.5천달러(+0.0천달러 WoW)
92.0천달러(+0.0천달러 WoW)

신조선가 및 중고선가

171.6p(+0.4p WoW)
151.4p(-0.3p WoW)

중국 내수 후판가격

564.0달러(-2.0p DoD)



자료: Clarksons,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HD현대중공업, 방위청 호위함 입찰결과에 이의제기... '디브리핑' 신청

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울산급 배치-III 호위함 5·6번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이 지정된 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도됨. 지난 2019년부터 방사청은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해 디브리핑 결과에 다시 이의가 발생할 경우 업무일 수 기준 3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짐. 한편, 업계는 HD현대중공업이 지난 2020년 9월 KDDX 개념 설계를 빼돌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이 약점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됨. (데일리안) (<https://t.ly/Q-yPD>)

한화오션, 연봉 1,000만원 인상...경쟁사 수준 맞춰

한화오션이 사무직군 연봉인상안을 발표했다고 보도됨. 직급별 차이는 있으나 평균 기존 연봉 대비 1,000만원가량 인상되며 경쟁사 수준의 임금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알려짐. 인재 유치 및 기존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로 언급됨. (이데일리) (<https://t.ly/keawx>)

Energy crisis puts Sub-Saharan LNG on the spot

글로벌 에너지위기로 LNG프로젝트들이 활기를 띠고 있으나, 아프리카 사하라 인근 LNG 프로젝트들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됨. 최소 9개 LNG프로젝트가 공사중(U/C) 이상의 단계에 놓여있고, 약 90BCM의 추가 생산 여력이 있다고 언급됨. 그러나 2027년부터 미국 및 카타르발 대규모 공급으로 2030년부터 수요 하락이 전망되어 아프리카 자원개발에 시간은 한정적이라고 언급됨. 한편, Mozambique프로젝트 · Tanzania프로젝트 등은 지정학적 문제, 인프라부족, 고비용 등 문제에 직면했다고 알려짐. (Upstream) (<https://tinyurl.com/3ky3jzz2>)

Energy crisis puts Sub-Saharan LNG on the spot

러시아가 흑해 Odesa항 인근을 미사일로 공격했는데,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재개가 어려울 전망으로 보도됨. 선박 정비소 및 급유설비가 파손되었다고 알려짐. UN · NATO · 터키 등의 보호 하에 또 다른 곡물수출항로 마련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고 언급됨. (Tradewinds) (<https://tinyurl.com/4adsa7ec>)

Atlantic product tanker rates skyrocket 64% in a day as Europe activity hots up

대서양 MR탱커 운임이 화요일(18일) 급등하며 2주 하락분을 모두 반납했다고 보도됨. Baltic Exchange에 따르면 전일대비 65.5% 상승했다고 알려짐. 타이트한 수급으로 선주センチ먼트는 긍정적이라고 언급됨. 미국 걸프만 수요가 타이트한 수급을 지지한다고 언급됨. (Tradewinds) (<https://t.ly/IXy4f>)

IEA "유럽, 흑한에 러 가스 공급 중단 시 또 에너지 대란"

IEA가 2023년 겨울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까지 중단할 경우 유럽이 에너지 대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됨. 연초부터 가스시장 긴장이 크게 완화됐으나 난방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잔존한다고 지적함. 현재까지 유럽시장의 천연가스 재고량은 안심할 수준인데, 8월초까지만 저장고의 90%, 9월 중순에는 100%를 채울 전망으로 언급됨. 그러나 여전히 유럽 내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는 10% 수준으로, 가스 공급 중단 시 유럽의 가스 저장량은 2024년 4월 20%로 대폭 하락할 수 있다고 언급됨. (연합뉴스) (<https://t.ly/7C4GH>)